

러시아 도핑 파문

『도핑과의 전쟁』



그림 1. 러시아 도핑 관련 사건 경위

러시아,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도핑 연루

2014년 12월, 독일의 한 방송사 보도를 시작으로 드러나게된 육상계와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로 국제스포츠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 Doping Agency)는 독일 방송사 ARD가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직후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를 구성하고, 논란이 된 러시아와 육상계의 도핑 의혹에 대한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두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11월, 독립위원회가 발표한 1차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연방안보국(FSB: Federal Security Bureau)의 담당자가 WADA로부터 인가를 받은 모스크바의 도핑 시험실에 드러나며 시험실의 관계자와 정기적인 회의를 가졌던 사실과 인가를 받지 않은 도핑 시험실을 비밀리에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험실에서는 1,400여 개의 양성반응 도핑 샘플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선수들이 위조된 시료를 사용해 양성 반응을 피하고자했던 일과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관리관들에게 뇌물까지 지급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2차 보고서에서는 前 국제육상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회장 Lamine Diack가 부적절하게 인사에 개입하고,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선수생체여권(Athlete Biological Passport)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러시아육상연맹 및 선수들에게 조사 결과를 적법한 절차대로 전달하지 않아 도핑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도록 방관한 정황이 드러났다.

ISR TIP 선수생체여권 (Athlete Biological Passport)

- 2009년부터 도입된 도핑검사 방법 중 하나로, 소변·혈액 샘플의 분석을 통해 도핑 여부를 직접적으로 밝혀내는 전통적인 방법(traditional direct detection)과는 다르게 도핑의 생체지표(biomarkers)를 시간을 두고 관찰함으로써 도핑 여부를 간접적으로 밝혀냄(indirectly reveal).
- 생체지표(biomarkers :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서, 생명체의 정상 또는 병리적인 상태,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두 차례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WADA는 독립위의 권고에 따라 모스크바 도핑시험실의 책임자를 영구제명하고, 해당시험실의 인가를 즉시 취소하였으며 Lamine Diack 前 IAAF 회장은 러시아 육상선수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러시아육상연맹은 IAAF로부터 도핑에 연루된 선수들의 '2016 리우올림픽대회' 출전을 금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림 2.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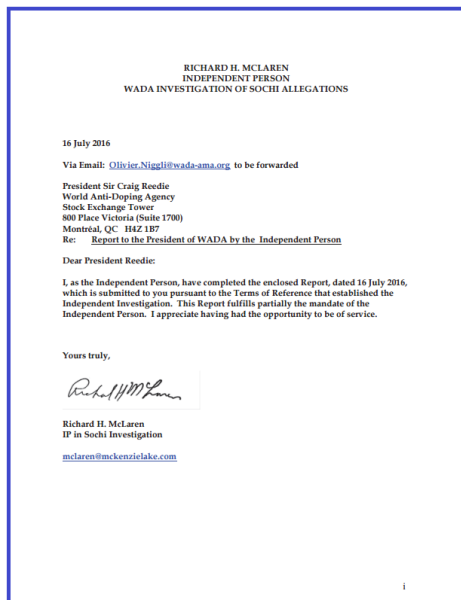


그림 3. McLaren 1차 보고서



그림 4.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로고

ISRTIP Olympic Summit

올림픽 무브먼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논의 및 상의하는 회의

2016년 6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Olympic Summit 회의에서는 러시아 도핑 사건에 대한 국제육상연맹(IAAF)이 내린 처분, 향후 도핑방지를 위한 각 NOC 및 IF의 노력, 그리고 '2008 베이징'과 '2012 런던' 당시의 시료를 재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2016년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5회 Olympic Summit 회의에서는 WADA의 도핑방지시스템 및 도핑방지시스템의 독립성, 조화, 투명성, 거버넌스, 보안, 예산 등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짐.

McLaren Report I 발표

러시아 육상연맹이 IAAF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 2016년 5월에는 러시아 도핑방지기구(RUSADA)의 前 직원 이었던 Vitaly Stepanov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당시의 도핑사건을 추가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자 러시아와 국제스포츠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WADA는 2014년 올림픽대회 당시의 도핑조작 여부를 조사하도록 Richard McLaren 변호사를 독립조사관으로 임명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7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1차 McLaren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회 당시 러시아 도핑시험실에서 선수들의 시료를 변조 및 바꿔치기하고, 체육부와 도핑방지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스포츠계의 반발이 심화되었고, WADA는 McLaren의 1차 보고서를 근거로 IOC에 러시아의 '2016 리우올림픽대회' 참가 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ISRTIP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World Anti-Doping Agency)

WADA는 1999년 스위스 사법(Swiss Private Law)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IOC가 공식 인정하는 독립 조직으로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없는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도핑방지에 관한 과학 연구 및 교육의 시행, 도핑방지 역량의 개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준수 감시, 금지약물 목록 제정 등 도핑방지에 관련된 모든 영역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IOC, 러시아 대표팀 올림픽 출전 여부는 IF의 몫?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IOC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소속 선수들의 2016 리우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선수단 전체에 대한 제재를 불허했다. Thomas Bach IOC 위원장은 모든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각 종목별 연맹(IFs,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과 각국 올림픽위원회(NOCs)의 결정사항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Bach 위원장은 IF가 WADA 규정 및 Olympic Summit 결정사항(2016년 6월 21일)을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선수들의 도핑테스트 자료는 국가종목별연맹(NFs, National Sports Federations)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선수들과 관련해서는, 도핑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선수는 징계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IOC의 결정으로 결국 2016 리우올림픽에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389명의 러시아 선수 중 271명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WADA 등 일부 국제연맹들은 IOC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IPC, 러시아 대표팀 전원 패럴림픽 출전 금지 처분

지난 2016년 8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RPC)가 도핑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연맹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단 전원은 리우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러시아에서 패럴림픽과 관련된 이벤트 또한 개최하지 못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림 5.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RPC) 로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Maria Zakharova는 ‘인간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하였고 IPC의 Sir Philip Craven 회장은 러시아의 도핑방지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몇몇 개인의 선수들은 깨끗하지 모르나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선수들을 참가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IOC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IPC의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CAS는 이를 기각했다.

Craven 회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만 축하할 일은 아니며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스포츠 당국, 러시아패럴림픽 연맹 및 선수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ISR TIP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독일의 본(Bonn)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198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인 비영리기구로서 177개의 국가 패럴림픽위원회(NPC: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 이루어져 있음. 하계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하며, 9개의 경기연맹을 총괄하고 각종 대회를 조정함. 현재 IPC의 회장은 Sir Phillip Craven으로 2001년(-2017년)부터 역임 중이며, 대한민국은 1989년부터 IPC 회원으로서 1988년 하계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음.

<9개 경기연맹>

- World Para Athletics
- World Para Swimming
- World Para Powerlifting
- World Shooting Para Sport
- World Para Dance Sport
- World Para Ice Hockey
- World Para Alpine Skiing
- World Para Nordic Skiing
- World Para Snowboard



그림 6.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로고

McLaren Report II 발표

2016년 12월, McLaren 2차 보고서가 추가로 발표되어 엄청난 규모의 러시아 도핑사건이 한번 더 드러났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도핑은 2011년부터 2014 소치올림픽대회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 등에도 영향을 끼쳐 현재까지 1,000여명 이상의 선수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제스포츠계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선수들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국제빙상연맹(ISU) 등의 많은 동계종목 국제연맹들이 잇따라 러시아에서의 대회 개최를 철회하거나 개최지를 변경하였으며 러시아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12월 23일, IOC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28명의 러시아 선수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OC는 소치올림픽대회 당시 WADA 독립위원회에 95개의 러시아 선수들의 시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 중 28개 샘플에서 시료 조작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도핑방지 시험실에서 해당 샘플들의 심층 검사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Vladimir Putin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도핑 의혹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2008, 2012 올림픽 도핑 샘플 재분석』



그림 7. 2008 베이징올림픽 공식로고



그림 8. 2012 런던올림픽 공식로고

IOC, 2008 베이징/ 2012 런던올림픽 도핑 샘플 재분석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파문과 관련한 각종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자 IOC 위원장 Tomas Bach는 도핑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들의 메달과 향후 올림픽 출전권을 모두 박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IOC의 미래 로드맵인 ‘Olympic Agenda 2020’의 일환으로, 깨끗한 선수를 보호하고 도핑방지를 실현하기 위해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2 런던올림픽’ 당시 도핑 샘플의 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수집했던 샘플들을 향상된 분석 기법으로 재분석하여 당시에 검출할 수 없었던 101개의 비정상 분석반응(AAF, Adverse Analytical Findings) 결과를 얻어냈다. 이 중 88명의 선수들이 제재 조치를 당하거나 메달이 박탈되었는데 러시아 출신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분석 결과 절반에 이르는 41명의 선수들은 역도 종목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IOC는 2017년에도 계속해서 적발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